

# 감정 구조 기반으로 문화적 기억 개념의 도시 공간 연구 적용\*70)

태지호\*\*

## 【 차 례 】

- I. 들어가는 글 : 도시 논의를 위한 문화적 기억의 용도
- II. 도시에 관한 이론들의 궤적과 문제 의식
- III. 도시 공간에 나타나는 감정 구조와 문화적 기억과의 관계
- IV. 연구 방법론적 틀로서 문화적 기억의 개념들
- V. 활력으로서의 기억과 감정 구조
- VI. 기능 기억과 감정 구조
- VII. 나가는 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감정 구조 기반으로 문화적 기억 개념을 활용한 도시 공간 연구 적용이다. 즉 문화적 기억 개념이 도시 공간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기억은 감정 구조의 기반으로 도시 공간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궤적이 자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 연구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 보았고, 이를 통해 그러한 연구들이 가지는 특징과 한계를 다루었다. 이후 감정 구조와 문화적 기억의 관계에 대해 정체성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문화적 기억 개념에 관한 논의를 통해 연구 방법론적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 공간 연구에서 문화적 기억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을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절차 중심이 아닌 의미 작용으로, 지향이 아닌 해체의 관점으로, 직능 구분이 아닌 기억 주체로, 지식 공유가 아닌 기억 경합으로 접

\* 이 논문은 2015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안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 공간은 정체성의 담지자들이자 사회의 다양한 역할 주체들인 기억 공동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열쇠어 : 감정 구조, 문화적 기억, 도시 공간, 도시 연구, 기억 연구

## I. 들어가는 글 : 도시 논의를 위한 문화적 기억의 용도

도시가 내포하는 의미는 사전적인 정의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이자 사회의 제 영역들의 중심지로만 여겨질 수 없다. 도시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현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거론될 수 있는 수많은 사회문화적 논의에서 중심적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도시에 대한 논의는 매우 간학제적일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개념들을 수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도시를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가 담아내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문화의 유형이나 특징과 같은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 상호 작용의 결과물이나 파생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문화적 실천이다.

도시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간이다. 장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실체이다. 이에 반해, 공간으로서 도시는 그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확장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의미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화적 실천이 문화의 맥락과 그것이 형성 및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도시에 대한 문제는 특정한 지점이나 고정된 장소로서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관점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본 연구는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감정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레이몬드 윌리엄스에 의해 제기된 “감정

구조(structure of feeling)란 단지 생각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작동하는 연속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는 현재적인 것에 대한 실천적 의식이다”.<sup>1)</sup> 감정 구조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경험들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실천들이 비록 구성원 및 제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을지라도, 이는 다양한 실천들의 접합을 통한 새로운 의미화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감정 구조의 개념적 용도가 정해질 수 있다.

한편, 도시의 문화적 실천들은 도시가 단지 당대의 제도나 행정적 차원의 문제를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도시 그 자체와 그곳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제시된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서 공유되는 감정 구조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개념은 문화적 기억이다. 문화적 기억이란 과거의 의미가 현재의 문화적 재현들을 통해 보존, 전승과 같은 의미화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은 과거에 대한 현재화의 작업으로서 기억이 그 담지자로서 개별 주체인 개인이나 인식 혹은 개념으로서 추상적인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문화적 기억은 집단 기억, 사회적 기억 등과 같은 여러 기억 개념과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한 의미를 삶의 실천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문화적 기억은 그러한 여러 기억 개념들을 포괄하기도 한다.<sup>2)</sup>

문화적 기억 개념이 감정 구조와 맞닿아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은 몇

- 
- 1) Williams, R.,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역, 지식올만드는지식, 2009, 212쪽.
  - 2) Assmann, A., *Erinnerungsräume*, 1999,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Assmann, J.,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Bal, M., *Acts of Memory: Cultural recall in the present*,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99.; Erll, A.,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roduction*, Erll, A., & Nünning, A.(eds.),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pp.1-15), Walter de Gruyter, 2008.; Weissberg, L., *Introduction*, Weissberg, L.(Eds.), *Cultural Memory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pp.7-26),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9.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우선 첫 번째로, 현대의 도시 공간에서 ‘문화 자원’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자원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시에 관한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에서 언급하는 문화 자원에 관한 ‘일반적인’ 전제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문화재, 전통 유산, 역사 공간 등으로 열거되며, 도시 공간의 현재 모습을 설명할 때 거론되는 대상들이다. 문화적 기억은 공간을 매개로 하여 지속되어 온 사람들의 체험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문화 자원들 자체의 기능 보다는 그것이 도시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의 감정 구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 문화적 기억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이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는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문화적 실천들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다. 도시 공간은 끊임없이 여러 문화적 형식들과 더불어 형성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화 자원은 물론이며, 도시 공간 그 자체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서 ‘매체’에 체화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 과정은 도시 공간의 주체인 사람들의 공유된 감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 공간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재현의 공간임을 전제로 할 때, 문화적 기억은 축적되고 변화되어온 도시 공간 속의 감정 구조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이자 기반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화적 기억은 역사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둘러싼 논의에서 과거, 전통, 경험 그리고 그 의미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면 ‘역사’ 개념이 수반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감정 구조를 논의하게 되면 그 관점은 보편적인 법칙을 찾기 위한 당위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 역사는 목적이 전제되고, 그에 따른 서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sup>3)</sup> 이에 반해, 문화적 기억은 고정된 의미 범주가 아

3) 태지호, 문화콘텐츠에 재현된 집단 기억의 문화기호학적 의미 연구, 『기호학연구』, 제 43집, 한국기호학회, 2015, 111쪽.

나라 실천의 맥락들을 읽을 수 있는 논점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은 역사적 연구가 아니라 문화 연구의 틀 속에서 도시 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본 연구는 문화적 기억과 도시 공간 속의 감정 구조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작업임과 동시에 도시의 ‘주인(들)’인 사람들의 경험과 그 실천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도시 공간 속의 감정 구조와 문화적 기억의 관계는 어떠한지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적 기억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Ⅱ. 도시에 관한 이론들의 궤적과 문제 의식

도시 공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도시를 행정적 단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도시 공간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매체로서, 삶과 관련된 수많은 사회적인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후 부각된 ‘도시’ 개념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간 변화되어온 도시의 모습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지금의 도시의 모습이 근대성이 실천되는 장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 등과 같은 현대 문화학 혹은 문화사회학의 창시자들에 의해 시작된 도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 및 발전되었다.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 구조가 발현된 공간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르크스는 도시에 대해 그러한 구조적 분석 즉 생산 양식의 물질적 조건들이 계급적 질서와 어떻게 구성

하며, 이를 통해 도시가 계급적 모순과 그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점을 제공하였다. 이에 반해,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윤리 의식과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관계되며, 그에 따른 공간으로서 도시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뒤르켐은 근대의 사회 분업론과 유기적 연대로서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 그리고 아노미와 같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상정하였다.<sup>4)</sup>

이후의 도시 연구는 도시 구조 및 도시 체계와 관련하여 도시의 발전 및 변천 과정을 다루고, 도시 사회 공간의 관점에서는 주택 정책, 환경 정책 등과 같은 도시 공간의 외형적 논의를, 이와 관련한 도시 설계에 대한 논의는 도시의 기능이나 경관 설계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 외에도 도시가 산업 사회의 장이자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산업의 입지나 노동의 공간 분업 그리고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 자원 및 지역 개발의 논점을 제기하는 논의들도 있다. 도시는 생태, 문화, 사회 체계, 생산과 소비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시 문제’와 결합되어 주로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지게 되었다.<sup>5)</sup> 이들에 의한 도시 공간의 논의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팽창에 의해 나타나는 행정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에 대해 집중된다.

이러한 도시 경제학 혹은 도시 지리학적 접근에 반해, 도시 공간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에서 주목되는 것은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이다. 마르크스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일상의 차원에서 공간이 생산 양식과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제시하는 그의 공간 이론은 도시를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공간이자, 공간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따라서 도시 공간은 ‘총체적’인 사회적 층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4) 민유기,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심산, 2007.

5) Saunders, Peter R.,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1986, 김찬호 역,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권용우 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1993.; 박삼욱,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1999.

국지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이고 주거라는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은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산’되며, 공간에 대한 지배가 결국 권력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르페브르 주장의 요체이다. 특히 그는 도시 공간은 단순히 특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가 서열화되고 그에 따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동되는 수단으로서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 공간은 단지 기능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르페브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마누엘 카스텔 또한 도시 내에서의 계급 투쟁을 통한 도시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리고 데이비드 하비의 경우, 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인간 작용 주목하면서, 특히 인간 실천에 의해 공간이 생산되고 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실천이며, 그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자본축적의 형태로서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도시 공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sup>8)</sup>

이러한 연구 경향들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실용적인 도시 공학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논의는 창조 도시론이다. 우선 제인 제이콥스는 인간의 활동이 창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양성이 강조된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도시의 혁신이 도시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sup>9)</sup> 이러한 창조 개념을 수용한 본격적인 창조 도시론은

6) Lefebvre, H., *La production de L'espace*, 1974,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 마누엘 카스텔은 최근에는 공간에 관한 논의를 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정보 양식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통제 방식, 경제 질서 및 문화, 네트워크된 공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8) Harvey, 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1989, 구동회 외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3.;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김호기 편,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한울, 2001, 150-214쪽.

9) Jacobs, J.,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리처드 플로리다와 찰스 랜드리에 의해 논의된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기업가 정신과 기술의 혁신을 전제로 한 예술 혹은 문화의 창조성을 주목하면서 도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sup>10)</sup> 이와 유사하게 찰스 랜드리에는 ‘창조도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도시의 문화적 자원들이 도시를 재창조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논의들의 주된 논조는 도시를 객체로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물론 도시를 다룸에 있어서 르페브르나 하비, 카스텔 등과 같이 인간과의 관계 및 인간 작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 공간에 관한 비판론적 시각을 견지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실용주의적 도시 연구자들의 강조점은 도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개발 및 변화되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있다. 도시 또한 일종의 유기체로서 그 모습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 가능성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도시는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공간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최근 국내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우선 김성도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도시 공간에 관한 방대한 이론들을 도시 사상사의 관점에서 종합함과 동시에 도시 기호학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텍스트가 의미화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도시 텍스트는 공감각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그 의미 체계 역시 도시 공간의 내외적 요소들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이와 함께 박여성의 논의는 도시를 둘러싼 쟁점과 그 의미화의 과정을 기호학적으로 바라보며 이항대립의 기저분화로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는 정태적 실재가 아니라 역동적 현실의 관점에

---

10)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2002.

11) Landry, C. *The Creative City*, 2000, 임상오 역, 『창조도시』, 해남, 2005.

12)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서 접근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sup>13)</sup>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 공간의 의미 체계가 결국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크게 부각하지 않았던 감정 구조의 문제를 도시 공간의 주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의 감정 구조는 결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도시 공간의 ‘공간다움’은 감정 구조의 문제와 상호작용함을 뜻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감정 구조의 담지자로서 인간과 인간의 구성물로서 도시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 Ⅲ. 도시 공간에 나타나는 감정 구조와 문화적 기억과의 관계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 구조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감정 구조는 세대나 시대를 거쳐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제도, 형성물, 신념 등의 변하게 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새롭게 생성되는 일련의 ‘역사적 문제’들과 관계한다.<sup>14)</sup> 따라서 감정 구조는 사람들의 체험 및 행위와 연관되며, 그것은 사회적인 영역의 문제이다. 즉 감정 구조는 사회적 체험과 분리되지 않으며, “융해된 형태의 사회적 경험”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15)</sup>

여기에서 구조(structure)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감정 구조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의 관련성을 가진다는데 있다. 동시에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감정의 총합이 아니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자 그 자체가 다양한 감정들의 준거가 된다. 따라서 감정 구조는 모든

---

13) 박여성, 「도시기호학을 위한 다섯 가지 쟁점」, 『영상문화』, Vol.13, 한국영상문화학회, 2008, 51-81쪽.

14) Williams, R., *op. cit.*, p.211.

15) Williams, R., *Ibid.*, pp.213-215.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실제적인 공동체에서 매우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소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의존하는 기반이 된다. 이에 대해서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예술이나 문학의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형식으로 그것이 현시된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한 성격의 사회성을 가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sup>16)</sup> 따라서 감정 구조는 사람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연결을 의미하며, 이는 인식의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 혹은 억압되는 것의 관계를 나타내며, 당대의 상황에 입각하여 부상하거나 새롭게 형성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쇠락하는 일련의 체험들과 접합한다.

감정 구조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든 체험 행위와 연관된다.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이 그러한 감정 구조의 장이자 감정 구조의 결과로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는 감정 구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도시는 당연히 사람들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즉 감정 구조는 도시 공간에 대한 문제에서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도시 공간이 단지 행정적이고, 물리적이고, ‘합리적인’ 장소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감정 구조를 생산 및 재생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특정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따라서 감정 구조는 단지 사람들의 정체성으로만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의 형성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나 혹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 정체성의 문제는 ‘그 도시는 어떠한가의 문제가 그 도시의 동일성과 개별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이다.<sup>17)</sup> 이렇게 볼 때, 감정 구조는 도시의 구성원들의 자의식과 귀속감 그리고 성찰성을 포함하는 실존적인 문제와 더불어 도시가 영속되어 온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도시와는 다른 ‘그 도시다움’의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도시

16) Williams, R., *Long Revolution*. 1961, 성은애 역, 『장구한 혁명』, 문학동네, 2007, 93-94쪽.

17)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84-85쪽.

공간에 관한 일련의 논의에서는 공간 그 자체와 더불어, 공간 속의 ‘삶’과 ‘경험’의 견지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도시의 정체성은 동시에 다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정 구조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으로서 기억의 문제를 배태하고 있음을 뜻한다.<sup>18)</sup>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의 기억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시화되고 그에 따른 매개의 역할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 문화적 기억 개념은 여러 기억 개념들 중에서 문화적 실천에 특히 주목한다. 그리고 문화적 기억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집단 기억이 현재의 문화적 실천에 체화된 모습들로 나타난다. 이들은 도시 공간의 ‘역사’와 같이 할 뿐 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현재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체험할 수 있는 ‘문화’들이다.<sup>19)</sup> 이와 관련하여,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의 세 가지 수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시대와 장소에서 체험된 문화, 예술로부터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기록된 문화, 현재의 체험과 시대를 연결해주는 전통의 문화가 그것이다.<sup>20)</sup> 이렇게 보면, 문화적 기억은 감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개념으로 정체성과 감정 구조를 다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와 ‘기억’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그 쓰임새 때문이다.

19)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문화적 기억의 사례로는 문자로 구성된 기록물, 문서 등과 같은 텍스트, 회화·사진·영상 등과 같은 이미지, 묘비나 기념비 혹은 송덕비 등의 구조물, 건축물과 기념관 및 박물관 등의 공간 구조물 그리고 의례와 축제 및 이벤트 등과 같이 실로 다양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적 기억의 개념적 특징에 대해 다룬 바 있는 안 아스만은 그 용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 아스만에 의하면, 문화적 기억은 정체성의 구체화이자 동시에 현재와의 연관성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적 기억이 코드화되고 조직화된 형식성을 가지며, 집단의 규범성과 가치 체계를 파생시키고 그에 따라 성찰성을 획득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문화적 기억은 구성원 및 구성원들과의 관계라는 사회적 관점과 문화적 생산이라는 물질적 관점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상과 생각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기억 개념이다. Assmann, J.,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pp.130-133.; Erll, A., *op. cit.*, p.3.

20) Williams, R., 1961, *op. cit.*, p.95.

정 구조를 형성시키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도시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경험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그 경험은 기억의 문제로 귀결된다.<sup>21)</sup> 따라서 문화적 기억은 도시 공간의 수많은 연속적인 요소들을 구성 및 재구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 공간 전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시키는 감정 구조를 생산하는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기억은 단지 과거에 대한 기록으로서 협소하게 이해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감정 구조를 형성토록 하는 생산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적 기억이 과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문화적 기억이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형성되어 도시 공간 전체를 의미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과 각자 나름대로의 삶이 존재한다. 특히 알레이다 아스만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장소’는 기억의 주체나 기억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라들의 기억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억을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22)</sup> 따라서 도시 공간이 문화적 기억에만 종속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 공간은 문화적 기억을 확고히 하면서 그 자체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기억은 도시 공간의 구성원들이 간직하고 있는 추상적 기억들이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현재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문화적 기억은 도시 공간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유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으로써 감정 구조의 일환이 된다.<sup>23)</sup>

---

21) 김성도, 같은 책, 772쪽.

22) Assmann, A., *op. cit.*, p.391.

23) 얀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을 언급하면서, 모리스 알박스의 집단 기억에 대해서 소통적 기억이라고 하면서 문화적 기억과 집단 기억이 다름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기반이라는 의미가 소통적 기억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 얀 아스만은 비교적 가까운 시대적 지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적 생애의 틀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소통적 기억이기 때문에, 문화적 기억과 소통적 기억은 구분됨을 강조한다.

#### IV. 연구 방법론적 틀로서 문화적 기억의 개념들

앞서 도시 공간 속의 감정 구조는 문화적 기억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문화적 기억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알레이다 아스만의 개념들에 주목하고, 이를 도시 공간 연구에서 감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sup>24)</sup> 이를 위해 알레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개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녀는 문화적 기억을 ‘기술로서의 기억’과 ‘활력으로서의 기억’으로 구분한다. 기술로서의 기억이란 예술이나 기술을 통한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억을 의미한다. 이는 암기나 기억력 등과 같은 각인된 기억의 유형이며, 저장과 인출 과정에서 동일성이 중시되며 일종의 기계적 처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다. 이에 반해, 활력으로서의 기억은 시간적 차원이 강조되어 회상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재구성된 기억이다. 활력은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억은 그에 따른 현재적 차원에서 변화의 모습을 가진다. 따라서 활력으로서의 기억은 회상과 망각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며, 기억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기억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외부의 의지나 새로운 욕구 등과 같은 활력에 의해 조종당할 수도 있다.<sup>25)</sup>

24) 그녀는 문화적 기억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특히 문화적 기억에 대한 고대의 문화가 아닌 근대의 형식과 내용에 다룬바 있다. 그녀의 문화적 기억에 관한 특징은 문화적 기억의 구분과 변화 양상을 통해 문화지형학의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녀가 문화적 기억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억의 심층 구조가 현재적 요소와 비현재적 요소 간의 내적인 교류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것이 의식구조의 변화와 혁신의 가능조건이라고 인식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기억은 결코 현재의 모습 전체를 특징지을 수 없지만, 현재 구성원들의 감정 구조의 지배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감정 구조는 문화적 기억의 관점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생하고 확산되고 해체되는 모습을 띄게 되며, 그에 따른 경험의 체계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Nünning, A., 『현대 문화학의 컨셉들』, 장진원 외 역, 유로서적, 2006, 241쪽.; Böhme, H.,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손동현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211쪽.

25) Assmann, A., *op. cit.*, pp.31-35.

한편 알레이다 아스만은 기억에 관한 이러한 사유의 전통을 통해 기억의 문화적 의미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 및 현재화되는 과정들을 논의하기 위해 ‘기능 기억’과 ‘저장 기억’의 구분을 제시한다. 우선 기능 기억이란 ‘현재와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억’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활성화적 기억으로서 기억은 집단, 제도 혹은 개인 등과 같은 특정한 기억 보유 혹은 소유자와 결부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능 기억은 ‘집단 관련성, 선택, 관련 가치, 목적의식, 미래지향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들을 통해 응집력 있는 서사 혹은 스토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저장 기억은 기능 기억과 달리 ‘현재와의 생생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억’이다. 따라서 이는 구속력이나 규범성이 없고, 정돈되지 않은, ‘의미 중립적인 요소들의 무정형의 덩어리’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현재에 대해서 어떠한 ‘활성적인 연관’을 제시하지 않는다. 집단의 영역 즉 기억의 사회성에 비추어 보면, 저장기억은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탈맥락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기능 기억은 선택 및 연관성, 의미구성 등과 같은 생성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기억은 주체 문제와 연관하여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기능 기억은 그것을 소유하거나 해석 및 판단할 수 있는 국가나 민족 등과 같은 집단적 행동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저장기억은 그러한 특정한 정체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본질적 기능은 기능 기억이 작동하는 범위 보다 더 많은 기억을 보관하는데 있다. 따라서 저장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축적되는 다양한 자료 기록, 데이터, 기록물, 기록물보관서, 아카이브 등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장 기억은 기능 기억과 사회적 기능에서 구별된다. 저장 기억은 사회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복구하거나 또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자원이자 비축창고가 된다.<sup>26)</sup>

---

26) Assmann, A., *op. cit.*, pp.168-177.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기억의 개념들을 도시 공간 논의를 위한 방법론적 틀로 삼아 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활력으로서의 기억과 기능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앞서 다룬 기존의 도시 이론의 관점들과 대비시켜 제시할 것이다. 이는 그러한 도시 이론들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정체성과 문화적 실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목적에 근거한다.

## V. 활력으로서의 기억과 감정 구조 : 도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접근

### 1. 절차 중심이 아닌 의미 작용으로

도시 공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 구조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의미’이다. 감정 구조가 총체성의 경험으로서 문화적 실천의 관점에서 논의된다고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그 의미는 문화적 재현의 문제이자 경험이라는 실천의 문제를 동반한다. 감정 구조는 도시 구성원들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가 현실에서 재현되어 파생되며, 이것은 곧 문화적 기억의 맥락 속에서 제시될 수 있다. 도시 공간의 의미 체계는 시간 속에서 체험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시대의 도시, 산업화 시대의 도시, 그리고 현재의 도시로서 도시 발달 과정을 다루는 도시 사회학에서는 그 특징을 사회 계급의 거주와 노동의 범위 공간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도시 변화의 주요인으로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 구조가 변화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에서 강조되는 것은 행정적이고 기능적인 도시의 제 요소들에 대한 일원화된 절차이다. 산업화와

도시의 문제를 항상 등치시키고, 그러한 산업화의 규범을 도시 공간의 문제에서도 해석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시와 도시의 구성원들에 대한 문화 또한 절차로서 인위적인 규범 틀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감정 구조가 외부적인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 공간의 절차적인 인식의 문제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감정 구조는 활력이라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총체적인 인간 작용의 문제이다. 여기서 감정 구조는 해당 도시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되어 도시 공간 속에 재현된다. 하지만 도시 공간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단계별로 인위적으로 ‘계획’하거나 접근하게 된다면 도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기억과 상호작용의 다양한 층위들을 표준화시키고 시스템화 하게 된다. 이것이 기술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활력으로서의 기억의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절차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본다는 것은 도시의 다양한 의미 형성의 요소들을 도시화 혹은 도시의 행정적 패턴에 근거하여 이해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도시의 제 요소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놓치게 된다. 즉 문화적 기억이 제기하고 있는 현재적 차원의 해석과 현실에 대한 의미 구성성의 문제를 고정화시키고 탈맥락화 한다.

도시의 의미구성체는 ‘의미구성체’인 것이다. 의미란 내부적인 의미 형성 요인들 뿐만 아니라,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도시의 의미는 절차라는 틀 속에서 규범적으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도시 사회의 요소에서 각기 달리 생성되고 그에 따른 도시의 서사로서 의미 체계를 가진다. 또한 그러한 내부적인 맥락 외에도, 내부인과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도시간의 관계 속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활력으로서의 기억이라는 시간적 흐름의 변형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 및 재구성된다. 따라서 절차 중심으로 보게 되면 도시는 ‘장소’로서 단일한 관점에서 계획되고 정해지게 될 뿐이지만, 의미 중심으



로 접근하게 되면 도시는 ‘공간’으로서 열린 구조를 가지게 된다. 도시 공간 속에서 감정 구조는 그러한 관점을 전제로,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일련의 결과와 더불어 나타나는 문화적 실천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 2. 지향이 아닌 해체의 관점으로

절차 중심의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은 특정한 결과로서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 도시의 편의성, 환경성, 심미성, 경제성 등의 지향 가치로 인해 도시 공간은 단순한 장소로서 기능한다. 활력으로서의 기억이 강조하는 바는 기억의 재구성성이며, 이는 항상 현재에서 출발한다.<sup>27)</sup> 이는 능동적인 현재에의 참여 행위이며, 변형과 왜곡, 전도, 개선을 전제로 한다. 도시 공간에 관한 특정한 목적론적 접근은 현재의 지배적인 경향성을 표시 할 뿐이다. 도시 공간은 특정 집단이나 주체에 의해서 공간성을 획득할 수 없다. 도시 공간은 그 자체가 부유(浮遊)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얀 아스만이 소통적 기억과 달리 문화적 기억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범적인 현재적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구성원들의 수많은 상징적 연출들은 도시 공간의 여러 지점과 그에 따른 시점에서 창출되는데, 이는 도시 공간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지향과 같은 연계성보다 중요한 개념은 해체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적 문화나 집단적인 의미 구성체들을 의도적으로 해체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 공간에 대한 지향성의 문제는 본격적인 도시의 시작이 근대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근대적 발상 및 논리와 상응한다. 근대성의 관점에서 도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체성의 붕괴와 더불어 나타나는 산업

---

27) Assmann, A., *op. cit.*, p.34.

논리와 합리성의 장소이다. 새로운 근대의 행정가들과 지금에 이르는 도시 전문가들은 도시를 ‘새 시대’의 ‘유토피아’로 구성하려 했다. 이에 따라 도시는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장소로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근대적 발상에 근거한 도시 공간의 접근에서 탈피하고 이에 대비한 반공간 혹은 대항공간으로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도시 공간의 연구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푸코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혹은 양립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공간을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 놓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sup>28)</sup>

유토피아가 그 목적성이 뚜렷하면서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환상의 개념인데 반해, 헤테로토피아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인 것이다. 도시 공간에 대한 지향성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구성원들과 그들의 삶과 괴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는 수많은 활력으로서의 기억을 통해 시간을 거쳐 끊임없이 그 장소는 해체되고 공간성이 획득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적 기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식에 따라 계속해서 겹쳐지며, 그 축적된 과정들은 현재의 감정 구조로 열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영속적이고 발전론적인 관점에서 도시 공간에 접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삶의 경험들을 놓치게 된다. 헤테로토피아가 한시적이고 다양한 시간의 분할 그리고 열림과 닫힘의 동시적인 체계를 가지는 것에서처럼,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은 불변하는 특정한 체제나 문화적 형식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가 다른 모든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sup>29)</sup>라고 표현하였듯이, 도시 공간에 대한 특정한 목적론적 관점은 도시 공간을 평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도시의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가 얹혀있고, 무질서하고, ‘퇴보적’으

---

28) Foucault, M.,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편역, 문화과지성사, 2014, 18-19쪽.

29) Foucault, M., *Ibid.*, p.24.

로 보일 지라도, 도시는 축적된 문화적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도시는 나름의 감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과 퇴보, 문명과 야만, 개발과 보존, 복지와 불평등 등과 같은 이항 대립 속에서 도시는 지향점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전제에 따른 도시에 대한 접근은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도시 공간이 아니라 역사로서의 도시 장소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도시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차원에서 위계화 되거나 계열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현존하는 공간이다.

## VI. 기능 기억과 감정 구조 : 도시의 주체로서 구성원들에 대한 접근

### 1. 직능 구분이 아닌 기억 주체로

도시 공간에서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접촉이 일어난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은 다양한 문화가 파생하고 행위들이 발생한다. 물론 도시 공간에는 뒤르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유기적 연대에 의한 분업화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공간의 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도시 연구에서 중시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도시 공간의 활성화 및 개발이나 재생 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도시 구성원들의 직능 구분이 가지는 한계에 있다. 직능 구분은 도시 공간을 위계화하며 특정한 기호로서 도시 공간의 지표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의 구성원들은 주류층과 소외층과 같은 계층으로서 구분된다. 하지만 개인들은 도시 공간에서 직능 구분에 따른 객체가 아니라 집단을 위해서 중요한 지식의 저장과 소환에 관여하는 개인으로서 기억 보유자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들 간의 중개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기능 기억으로서 문화적 기억이다. 기능 기억

은 사회 조직이나 형태의 합법화나 정체성의 구성과 같은 문제에서 개인들과 집단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이면서도 실재적이다. 직능 구분에 의한 개인들은 직능을 떠나게 되면 도시 공간에서 소외되고 만보객으로 전락하게 된다. 직능 구분의 틀 속에서 호명될 뿐이다. 개인들은 기억 주체로서 감정 구조를 구축하는 수행자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직능 구분에 따른 도시 공간의 접근은 스펙터클한 근대 공간의 완성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표류하는 개인들을 파생시킨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기능 기억이 문화적 지식들을 조직하고 그에 따른 절차들이 재현되고 현재화되는 과정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형성을 의미한다고 하여, 기억 주체로서 개인들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집단 기억을 주창한 모리스 알박스나 문화적 기억에 대해 강조한 알레이다 아스만 모두 기억 보유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기억의 최소 단위이자 담지자이기 때문에 기억 주체로서 개인은 집단적 현재화 및 의미 형성의 개별 단위이다. 연구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거시사적 관점과 대별되는 구술사나 개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기억 주체로서 개인들은 도시 공간의 변화에 따른 서술 주체가 된다. 특히 개인들은 각각의 기억을 통해 자아의 연속성을 체험함과 동시에 이미 경험한 것들 혹은 문화적 기억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정할 수 있다.<sup>30)</sup>

이와 함께, 직능 구분으로서의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보다도 도시 공간의 다양성의 축소와 기능적 분할에 있다. 직능 구분은 오히려 도시 구성원들의 역할과 의미가 퇴색되며, 그에 따라 도시 공간에 대한 통시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 공유되는 감정 구조는 도시 내부인 뿐 만 아니라, 외부인과의 상호 교류를

---

30) Nünning, A., *op. cit.*, p.247.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데, 직능 구분은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기능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 구조는 원주민, 이주민, 일시적 방문객 혹은 관광객 등과 같은 여러 구성원들의 고유한 의미체계들과 조우하면서 형성된다. 여기서 문화적 기억은 개인들로 하여금 도시 공간에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선매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도시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 기억들 및 기억 주체들이 경쟁하고 공존하는 과정 속에서 공간으로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이 가지는 함의는 집단적 규범 및 의식으로서의 현재적 재현 속에서 자기 성찰적 인식이 중첩되는 장이 된다는 점이며, 이것이 집단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감정 구조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도시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기억 주체들의 실천들에 의해 기억을 간직하게 되며 그에 따른 공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도시 공간에서 기억 주체로서 개인들의 역할이 정해질 수 있다. 즉 문화적 기억의 맥락 속에서 도시 공간은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실천 외에도 개인들 혹은 개별적 실천에 의해서 상호관계적으로 구성된다. 즉 도시 공간은 그러한 공적 기억들 외에도 기억 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사적 기억들과의 조합 및 분할 과정을 통해 문화적 기억이라는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소와 공간의 구별은 다시 한번 명확해지는데, 장소가 의미의 단일성과 사회제도적으로 규정된 지점인데 반해, 공간은 개인들의 실천과 성찰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변화가능성을 내포한다.

## 2. 지식 공유가 아닌 기억 경합으로

도시 공간에 대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의 집적과 그에 따른 도시의 ‘생산성’과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도시 연구에서 주된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창조 도시론과 같은 논의에서는 예술가, 기업가, 기술전문가, 연구자 등의 창조성과 그 네트워크의 장으로 도시를 강조한다. 여기서

간과되는 사안은 구성원들 각각의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들 간의 상호작용은 집단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집단 정체성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위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축적되는 양상이자 그에 따른 사회적 조정과 협상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기억은 도시 공간의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방식이자 그들의 표상이 된다.

하지만 그 경험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우, 도시 공간이 내포한 다양한 기억들은 유용성의 차원에서 한정된 가치로만 인정된다. 특히 현대 도시 공간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시 브랜딩이나 도시 이미지 혹은 도시 마케팅 등과 같은 문제만 보더라도, 그것의 방점은 도시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여 실질적인 관광 산업이나 도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가에 놓여있다. 지식은 도시 공간의 기억들에 선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능 기억의 관점에서 지식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억과 달리 지식은 도시 공간의 다양한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도시 공간의 비전과 미래의 모습을 구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결속과 집단적 목표의 설정일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 구성원들의 상호신뢰 더불어 감정 구조에 대한 문제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전적으로 도시 정체성의 문제와 결부되며, 그 기반은 도시 공간의 문화적 기억에 있다. 지식과 달리 기억은 지속적이며, 삶의 경험을 수반하고, 일상적이라는 점에서 도시 공간의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

물론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문화와 제도 그리고 경제를 포괄하는 사회의 변화상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sup>31)</sup>의 관점에서, 지식의 공유는 도시 공간의 구조적 변동을 ‘순기능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가 개발이나 재생 등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도, 기억은 두 가지

---

31) Castelles, M.,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2000.

측면에서 유효하다. 첫째는 문화적 기억이 자원이 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문화적 기억이 그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결과이자 도시의 활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 기억이 자원이 된다는 점은 문화 자본의 관점에서 장소 기억 혹은 ‘역사적’ 유물 및 유적 등과 같은 흔적들의 활용과 이를 통한 도시 경제, 관광, 공간 구획 등과 같은 도시 정책과 연관된다. 문화적 기억이 도시 공간의 갈등과 조정의 장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집단 정체성의 구축과 연관된다. 실제로 도시의 구성원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문제는 자신들의 기억과 연결시키고 그에 따른 형식적인 자아상으로서 삶을 규정할 뿐 만 아니라 그 행위의 방향 또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은 도시의 내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이주민 등과 같은 경계인도 포함되며, 그러한 다양한 기억의 경합이 도시 공간의 기능 기억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억의 경합은 구성원들이 도시 공간이라는 의미 구성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지식과 달리 기억은 개인들과 집단에 있어서 특별한 상징의 문제이자 의미의 발생과 공유 그리고 폐기와 같은 정체성의 형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은 지식과 달리 지속적인 차원에서 도시 공간의 의미 구성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가진다. 특히 알레이다 아스만에 의하면 기억을 통한 의미 구성의 생성에서, 자신들의 해석과 규정은 동일한데,

“이는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 준다. 개개인에게 미래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어떤 것은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은 기억의 구성에 달려있다.”<sup>32)</sup>

따라서 지식이 현재나 혹은 과업 위주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차원이라면 기억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

32) Assmann, A., *op. cit.*, p.170.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의 문화적인 규범과 행동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포괄한다. 기억의 경합은 그것이 비록 지식의 공유와 달리 ‘합리적’이지 않을 지라도 ‘살아있는’ 도시 공간을 만든다. 이는 단지 기억의 문제를 과거로부터의 교훈이나 교조적인 과거 숭배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함이 아니다. 기억의 경합은 도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다. 이는 특정한 권력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정적인 사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VII. 나가는 글 : 읽혀진 도시 장소가 아닌 씩여지는 도시 공간으로

본 연구는 감정 구조의 현존체로서 도시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지점을 문화적 기억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문화적 기억은 과거에 대한 인식으로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와의 단절 혹은 독립된 현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건데, 문화적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원들의 상호적인 관계의 존재와 의식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기억을 포함한 기억 개념은 역사와 달리 절대적인 가치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기억 개념을 방법론적 틀로 삼아 도시 공간 연구에 적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문제 설정은 도시에 대한 계량적인 사회과학적 연구의 한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논의를 권력이나 자본 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비판의 관점에서 진행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문화적 기억에 대해 권력과 자본과 같은 사회 구성체의 제 요소들과 정체성의 형성 및 선험적인 시간적 조건에 따른 인간 상호 작용의 모습으로서 감정 구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했



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들이 ‘기억’이라는 시간적 궤적에 대한 인식 속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문화적 기억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들을 도시 공간 연구의 방법적 틀로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지향점은 도시가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특정한 형태로 존재해왔거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개념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도시는 일종의 담론적 속성을 내포한 구성물이다. 도시에 대한 접근은 도시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계획이나 정제된 성과를 위한 지향점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의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바르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는 읽히거나(readerly)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씌여지고(writerly) 구성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시 또한 장소로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씌여지는 공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도시 공간이 씌여지는 과정은 다양한 문화적 기억의 충돌과 경합을 통해 직조된 열린 텍스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단지 문화 유산 등과 같은 문화적 기억을 통해 도시가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도시 구성원들의 기억들에 의해 계속해서 덧씌어질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도시는 경제학적으로 가독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학적으로는 끊임없이 다시 쓰여질 뿐이다. 덧붙여, 기술로서의 기억이 아니라 활력으로서의 기억으로서, 저장 기억이 아니라 기능 기억으로서 도시 공간이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와 조우할 수 있음이 재차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도시 공간은 정치경제적 측면 외에도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은 문화를 물리적인 자산이나 활용 가치로서 주목하는 관점을 넘어서 그것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의 감정 구조로서 현존하고 있는 문화적 기억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문화정치학의 과정으로서 여러 정체성들과의 경합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공간은 정체성의 담지자들이자 사회의 다양한 역할 주체들인

기억 공동체(memory community)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기억은 이러한 주체들의 기억이자 도시 공간 자체의 기억으로서 도시의 감정 구조의 기반이자 도시를 위한 감정 구조의 기반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용우 외,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1993.; 박삼옥, 『현대경제지리학』, 아르케, 1999.
-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 민유기,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심산, 2007.
- 박여성, 「도시기호학을 위한 다섯 가지 쟁점」, 『영상문화』, Vol.13, 한국영상문화학회, 2008, 51-81쪽.
-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 공간의 정치경제학과 포스트모더니티」, 김호기 편,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한울, 2001, 150-214쪽.
- 태지호, 「문화콘텐츠에 재현된 집단 기억의 문화기호학적 의미 연구」, 『기호학연구』, 제43집, 한국기호학회, 2015, 89-116쪽.
- Assmann, A., *Erinnerungsräume*, 1999,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Assmann, J.,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Assmann, J.,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995, pp.125-133.
- Bal, M., *Acts of Memory: Cultural recall in the present*,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99.
- Böhme, H., *Orientierung Kulturwissenschaft*, 2000, 손동현 역, 『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 Castelles, M.,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ing, 2000.
- Erll, A.,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roduction, Erll, A., & Nünning, A.(eds.),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pp.1~15), Walter de Gruyter, 2008.
-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2002.
- Foucault, M., *Les Hétérotopies - Le Corps Utopique*, 2009, 이상길 편역, 『헤테로토피아』, (pp.11-58), 문화과지성사, 2014(원저 출판연도 1966).
- Harvey, 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1989, 구동희 외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2003.

- Jacobs, J.,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 Landry, C. *The Creative City*, 2000, 임상오 역, 『창조도시』, 해남, 2005.
- Lefebvre, H., *La production de L'espace*, 1974,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Nünning, A., *Konzepte der Kulturwissenschaften*, 2003, 장진원 외 역, 『현대 문화학의 컨셉들』, 유로서적, 2006.
- Saunders, Peter R.,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1986, 김찬호 역,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 Weissberg, L., Introduction, Weissberg, L.(Eds.), *Cultural Memory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pp.7-26),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9.
- Williams, R., *Long Revolution*, 1961, 성은애 역, 『장구한 혁명』, 문학동네, 2007.
- Williams, R., *Marxism and Literature*, 1977, 박만준 역,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 An application of a research on urban space by using the concept of cultural memory as the structure of feeling

Tae, Ji-Ho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of a research on urban space by using the concept of cultural memory as the structure of feeling. In other words, it deals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memory which can be applied to a research of urban space. Cultural memory as the groundwork of structure of feeling is the trajectory and practice of life of various members making up an urban space. For this study examines theories concerning existing researches on cities and deals with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researches. Also, this study looks into the relations between the structure of feeling and cultural memory from the view of identity, and establishes methodological frames of researches through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cultural memory.

Through this, this study proposes points where the concept of cultural memory in the research of urban space can be applied in four aspects. This means it can be approached via signification not procedure-oriented; the view of dissolution not aspiration; as the subject of memory, not classification of functions; and contention of memory, not sharing of knowledge. It is because an urban space obtains a meaning through interactions of memory community, who are the bearers of identity and the subject of various roles in society.

Key words : Structure of feeling, Cultural memory, Urban space, Urban studies, Memory studies.

투고일 : 2016. 05. 15. / 심사일 : 2016. 05. 31. / 심사완료일 : 2016. 06. 06.